

##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와 구여성의 여행체험\*

-〈경성노정기인력거〉를 중심으로-

유정선\*\*

<차 례>

1. 구여성과 기행가사
2. 작품 구성과 여행의 동기
3. 경성 유람, 전통성과 근대성
4.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 산수 유람 전통과 근대 관광의 교차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936년에 구여성이 지은 <경성노정기인력거>를 대상으로,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작품에는 전통적 정서와 낮은 문명 체험이라는 이질적 요소들이 공존한다. 전통적인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집안 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가운데, 낯설면서도 편리한 문명체험이 교직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적 친족관계와 집단적 유대의식을 중시하는 전통적 정서와 함께, 문명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감탄이 공존한다.

경성에서 이러한 상이한 질서들이 마찰하는 대표적 장소는 궁궐이었다. 궁궐은 조선 왕조의 잔상을 간직한 장소이자 위락시설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장소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질서가 마찰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지은이는 경성을 유람하며 왕조의 부재와 물질적 변영의 공존이라는 이질적이고 모순된 질서들이 공존하는 데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는다.

1930년대 구여성들의 여성 기행가사에는 감각적이고 유희적인 근대관광의 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146)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협과 문화적 교양행위인 산수 유람의 전통이 교차한다. 하지만 인문지리와 산수유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락적인 관광체험에 함몰되지 않고 국망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구여성들이 경성을 유람하며 느낀 점은 문명의 발달을 표상하는 신문물의 화려함과 정신적 구심점의 부재가 공존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또는 물질문명에 대한 찬탄에 앞서는 국망 현실의 안타까움이었다.

□ 구여성, 기행가사, 경성노정기인력거, 1930년대, 근대관광, 산수유람

## 1. 구여성과 기행가사

규방가사에서 기행은 최근세인 1950~70년대까지 중심 테마가 되어왔다. 19세기 유명씨 작가들의 기행가사 작품들이 지어진 이후로, ‘기행’은 후대로 갈수록 규방가사의 핵심 주제가 된다.<sup>1)</sup> 이렇게 ‘기행’이 지속적인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여성들의 욕망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세기 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허용되면서 여성의 삶에서도 공적·사적 영역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지시하는 구여성/신여성의 용어가 생성되었다. 여성들의 여행은 이전 시기보다 좀더 자유로워졌으며, 여행지도 해외로까지 확장되며 다양해진다.

이중 기행가사의 작가들은 ‘구여성’이라 호명되는 향촌 여성들이다. 구여성이 지은 여성 기행가사에는 전통적인 습속과 경험에 익숙한 여성들이 새롭게 부상한 근대적 가치들과 교호하면서 겪는 의식이 투영된다. 이 점에서 여성 기행가사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구여성들이 근대라는

1)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37집, 한국고전학회, 2007, 164쪽.

시대적 분위기를 호흡하며 어떠한 의식의 변화를 겪는지, 그 과정적 의의를 보여준다.

최근에 소개된 여성 기행가사 <경성노정기인력거>는 1936년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 사는 여성이 경성을 여행하고 지은 필사본 작품이다. 1930년대에 향촌에 사는 여성이 경성의 신문물을 체험한 내용으로 구여성이 바라본 ‘근대’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다.

가사 <경성노정기인력거>는 처음 학계에 소개<sup>2)</sup>된 이후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여성 기행가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창작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19세기 유명씨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이에 반해 20세기 초에 창작된 여성 기행가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먼저 20세기 초 가사에 대한 연구의 첫 시도라 할 연구는, 20세기 초 기행가사 전반에 투영된 여행체험이 근대 상업적 관광의 출현으로 특징된다고 본 연구이다.<sup>4)</sup> 여기서 근대적 관광체험의 특성은 신문물 체험욕구와 경성유람의 성행, 목적지까지의 노정 생략, 여행체험

2) 이 작품은 『영남내방가사』4(이정옥 편, 국학자료원, 2003)에 영인되어 실렸으며, 이어 장정수가 논문에서 간략하게 작품 내용을 소개하였다. 장정수, 『1960~70년대 기행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행문화와 작품세계- 유흥적 성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70권, 민족어문학회, 2014, 7쪽.

3) 선행연구들은 19세기 여성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여성의 여행체험에서 여성 젠더 특유의 특징과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백순철, 『조선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여행형태와 현실인식』, 『고전과 해석』5집, 고전한문학회연구학회, 2008;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고전여성문학연구』17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8; 권정은, 『여성기행가사의 관유체험』,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김병국 외, 월인, 2005.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있다.

4) 장정수는 20세기 초로 창작시기가 추정되는 5편의 기행가사를 대상으로, 20세기 초 기행가사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배경과 작품세계』, 『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2003, 415~447쪽.

의 충실한 전달이나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강도 저하 등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 여성기행가사도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 신문물에 대한 묘사와 찬탄, 상업화된 근대 관광의 소비가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5)</sup> 다음으로 향촌여성의 문명체험과 이산체험이 나타나며 산수 유람의 체험과 글쓰기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 연구가 있다.<sup>6)</sup>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20세기 초 여성기행가사는 근대적 관광체험으로 특징되며, 그 여행체험도 ‘신문물에 대한 찬탄과 소비체험’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대 여성기행가사의 통시적인 흐름에 대한 접근보다는 근대에 창작된 여성 기행가사 전반의 특질을 밝히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런데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유교이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던 향촌의 여성들이 신문물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감정적 파장과 내면적 동요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구여성들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동경과 비판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이 신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롭게 근대관광체험이 출현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여성 기행가사의 기행체험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교차라는 지점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근대 여성기행가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되, 1930년대에 경성 유람길에 나서는 구여성의 근대체험을 여성 기행가사 고유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성 기행가사의 전통 속에 녹아있는 기행체험은 여성들 고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욕망을 참여하게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장정수(2014), 앞의 논문, 7쪽.

6) 유정선, 『근대기행가사연구』, 보고서, 2013, 278~310쪽.

여성 기행가사에서 근대문물의 도시인 경성이 여행지로 등장하는 시기는 20세기 초이다. 그간 향촌여성들에게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은 남성들의 공간이며 풍문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워진 시대 분위기를 타고 근대문물의 전시장인 경성을 방문하고 있다. 향촌에서 전통적인 삶을 살아온 지은이가, 신문물의 전시장인 경성을 돌아보며 풍문으로만 전해 들던 ‘문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 2. 작품 구성과 여행의 동기

이 작품은 경북 안동 예안촌에 사는 여성이 친지의 초청을 받아 경성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내용이다. 작품은 총 630여 구로 비교적 장편에 속한다. 작품의 전체 구성은 ‘도입부, 경성으로 향하는 도정, 경성유람, 귀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ㄱ. 도입부 : 1~235구
- ㄴ. 경성으로 향하는 도정 : 236~280구
- ㄷ. 경성유람 : 281~590구
- ㄹ. 귀환 : 591~638구

이 작품의 전체 구성에서 특징적인 점은, 도입부가 본론인 ‘경성 유람’ 부분에 못지않게 확장 되어 있는 점이다. 서두에서 현재 일흔의 노경에 들어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자의 회고는 ‘성장과정, 혼인 후의 생활, 현재의 삶’ 등으로 이어지면서 녹록치 않았던 지난 날을 돌아본다.

이때 회상의 시작을 여는 것은 “무용(無用)한 여신(女身) 되어 절통

(切痛)하고 애들하다”는, 여자로서의 자탄이다. 친정아버지는 문장으로 이름난 요족했던 가문 출신이었지만 이러한 아버지를 이룬 나이에 여의고, ‘녹발홍장(綠髮紅粧)’의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남매를 길러냈다.

우리 부모 일 골록이 늘글스록 원통히라  
 차흠다 우리 엄친 원통할스 우리 왕장  
 문장지화 가초시고 인기명망 자자하스  
 일문니 충양하고 상인의 휘자튼니  
 조물이 시기튼가 가운데가 문운인가  
 청춘요세 형제분니 일월진내 원통이 조세호옵신니  
 천효귀효 무지제천 창상세계 되단말가  
 무궁무진 싸힌 재력 포진천물 간 곳 업다  
 일전편친 처즈유치 어디부탁 호오신고  
 지원극통 이 심장이 세고역 바진 연다세월  
 한심코도 가엽서라  
 나의 소희 엇지 다 형언하야 기록하라

아버지가 ‘문장 재화(文章才華)’를 갖추고 인기명망(人氣名望)이 자자했으나 조세(早世)하였으며 이후 무궁무진했던 재력이 간 곳 없어지고 극심한 원망이 쌓일 정도로 고생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 16세에 영남의 ‘문벌이 현현한’ 가문에 시집오게 된다.

따라서 지은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후 홀로 된 젊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덧없이 출가할 나이가 되어 친정을 떠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한다.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탄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출가한 후에도 “초가삼간 국단지”로 표현되는 가세의 빈궁함을 겪었지만, 안빈낙도를 하며 절약하고 근고하게 지내왔노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한 과거는 여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와 대조를 이룬다. 출가 후 자녀를 성가시키고 손자들이 늘면서 가문의 융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자녀들과 손주들의 외형과 성품에 대한 형용이 자부심에 찬 어조로 길게 열거된다. 그중에는 자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경우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 둘째며느리는 “심덕효행(心德孝行)이 고인(古人)을 압두(壓頭)”하나 병이 들어 있어 “내 가슴 철뫼이야 풀일 길 전혀 없다”고 하여 병든 며느리에 대한 애타는 심경을 드러낸다. 또한 멀리 시집가서 거의 보기 힘든 딸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옥인가랑(玉人佳郎)과 쌍을 지어 아들을 낳으니 기특해 하기도 한다. 그 만큼 자녀들로 대변되는 집안 또는 가문은 지은이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지은이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천만고초(千萬苦楚) 열역풍상(閱歷風霜)’으로 요약하며, 그러한 고생을 딛고서 이만큼 일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칠십에 이르기까지 해로하면서 녹수청산을 희롱하고 있으며, 어진 며느리와 자손들의 성황 속에서 “오문창대(吾門昌大) 즐거워라”라 하여 가문의 창성함에 기뻐한다.<sup>7)</sup>

이와 같이 자신의 일생을 세세히 돌아본 후에 비로소 경성 유람길에 오르게 된 계기를 술회한다. 이번 여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외손의 초청이다.

외손아 김실이난 너외 유경한 지 몇몇 희의  
연연 춘초 가절 디면 구경오라 간청하니  
심닉의 간절하디 너외 효의 인정도 과망하고  
어엿분 증손들이 면면이 보고 접고 한번 소창 즐기리라

7) “지금은 칠십에 해로하여 녹수청산 희롱하고/ 장자는 자녀손 가진 자황 무궁하고/  
현부의 후의 광채가 만복의 근원이며/ 손이는 장래 영웅의 기상이요 (중략) 오문창대  
즐거워라”

벌써 여러 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외손아(外孫兒) 김실 내외가 ‘연연(年年) 춘초(春初) 가절(佳節)’ 되면 구경하러 오기를 간청하므로 효심이 지극하여 거절하기 어렵고, 어여쁜 증손들의 면면(面靨)도 보고 싶어 한번 즐기러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경성을 여행하게 되는 목적은 서울 구경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집안 성원들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친지들과의 상봉은 이번 여행의 부차적인 목적에 머물지 않는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안부를 주고받으며 자녀들의 건재함과 손주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친지들을 만나 정의(情誼)를 돈뎌히 하는 것은 도시의 견문체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자에게 가족, 나아가 가문은 자신의 그간 삶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이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

### 3. 경성 유람, 전통성과 근대성

#### 1) 전통적 정서와 낯선 문명

전통적으로 여성 기행가사에서 여행은 일상적인 생활영역과 가사노동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컸다.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담당하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외부로의 여행은 매우 드문 기회였다. 이런 점에서 여행이 일상의 규범에서 놓여나는 놀이의 성격을 지니며 정서적 체험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 정서적 체험의 근간에는 집단적 유대의식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다.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습속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여성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신체와 시/공간의 자발적 운용, 그리고 자기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것<sup>8)</sup>을 뜻한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여



성들에게 외부로의 여행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외부세계로 나아간다는 자각을 갖게 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었던 자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은이는 여행을 계기로 집안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자신의 현존을 응시하면서 삶의 이력을 세세하게 반추한다.<sup>9)</sup>

또한 여행이 놀이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정서적 체험을 우선시한다.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보다 어디로든 ‘나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성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도 가족 성원에 대한 친화의식이 종종 여행의 노정이나 건문의 내용을 대신하고 있어, 여행을 정서적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sup>10)</sup>

지은이는 기차를 이용하여 경성으로 향한다. 경북 안동의 예안촌에서 출발하여 풍산, 예천, 상주, 김천, 수원을 거쳐 경성에 도착한다. 기차여행의 여정은 경유지만이 간략히 언급되는데, 이렇게 열거한 경유지들은 모두 연고가 있어 각별한 감회를 일으키는 고장들이다. 안동읍을 떠나 풍산에 다다르자 고향이 지척이면서도 형제들을 상면하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상주읍에서는 각별한 정의를 나누는 사돈을 떠올리는가 하면, 예천읍에서는 “규곡의 김실을 보고저라”라 하여 역시 친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여행은 단독자로서의 개별여행이 아니라 친지 등 여러 명이 함께 하며 손을 맞잡고 여행하는 형태이다.<sup>11)</sup> 작품 안에는 가문의 성원들

8)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70~85쪽 참조

9) 이러한 성격은 동시대에 창작된 여성 기행가사인 <종반송별>, <해인사유람가>도 공통된다.

10) 유정선, 『<금행일기>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214쪽.

을 지시하는 ‘외손(外孫)’, ‘질아(姪兒)’, ‘사돈(查頓)’, ‘손서(孫婿)’ 등의 어휘들과 ‘모즈(母子)’, ‘조손(祖孫)’ 등 친족관계에 대한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애초에 여행의 목적이 경성유람뿐 아니라 친지들과의 상봉을 고대했던 것이므로 사돈들, 자식과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거명하며 상봉의 기쁜 감정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여행 중 동반자들 사이에 오가는 정서적 교감이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경성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는 기쁨을 술회한다. 오랜만에 보는 손서(孫婿)와 증손들의 모습, ‘만리행거(萬里行車)’를 앞둔 만이에 대한 걱정, 손자들의 사랑스러움, 사돈과의 돈독한 정 등 집단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여 집안 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무궁무진 조흔구경 유감업시 헛건만난  
 디아이 말이 헛거 셋칠일 막연하다  
 천스만담 이려지정 숙식간의 못 이즐다  
 보중하고 조심하여 말이타국 멀고먼디  
 무스이 도축하여 신상이 건강하야 말이이과  
 너의 부모 위로하라 이즈지정 못 견딜다  
 심신을 진정하야 전츄탈 다시타고

유람 중 구경에 몰두하다가도 ‘큰 아이의 만리 행거(萬里 行車) 떨칠 일이 막연하다’하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끼어든다. 이러한 감정은 유람 도중에 끼어들어 즐거운 정서를 가로막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와 가족, 친지들 사이에 흐르는 정서적 교감과 성원들의 외양 및 성품의 형용은 관습적 용어에 기대어 전통적인 정서로 표현된다.

11) “중야난 압서우고 질아 형오 뒤서우고 조손니 손을 잡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정은 ‘의려지정(倚閭之情)’으로 표현된다.

철이긋지 극일지난 연아친척 만홀시고  
 미동의 맛생질리 수츠을 츠즈온이  
 선풍도골 관중하고 음이로 인정 썬니  
 가상하고 기특하다 손서의 조옥낭이  
 유경하여 즈로본이 앙중하고 귀중하다  
 스양의 겹사둔니 유경흔지 몇몇히예  
 즈황즈미 가즈시고 효즈현부 옥손들과  
 영화로이 지나시고 관홍디랑 우리사돈  
 날을 보고 밀밀전곡 악수상봉 엇지 이리 감스흔고  
 굿히사돈 의의상봉 방가와라  
 우리 삼인 형재갓치 히한하고  
 해제사돈 형재분을 닉와서 상디한이  
 이도 쏘한 히한하다 웅웅즈질 광곡하기 증양업고  
 우리스돈 면면니 기록하여  
 췌칠 일리 아연섭섭 여치여몽 술푸도다  
 여중군즈 용흔사돈 풍유호걸 춤춘딕이  
 갓곳마다 흥치롭고

친지들이 자주 찾아와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가 하면, 어려운 관계  
 일 수 있는 사돈과의 돈독한 친밀감을 토로하며 즐거워한다. 손자와 현부  
 (賢婦), ‘옥손(玉孫)’, ‘굿히 사돈’, ‘맛생질’ 등 면면이 반갑고 귀중하며, 감  
 사하다. 이때 가족들의 성품과 개성을 칭상하는 표현들도 ‘도학군자(道學  
 君子)’, ‘선풍도골(仙風道骨)’, ‘풍류호걸(風流豪傑)’, ‘여중군자(女中君  
 子)’ 등 전통적인 인간형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전통적인 친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오가는 교

감을 관습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도 전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수십 여명의 친외손(親外孫)에게 ‘시류(時流)의 부박(浮薄)함을 경계’<sup>12)</sup>하는 모습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그 ‘시류’의 함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풍조를 ‘부박하다’고 하여 경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행 중 정서적 체험이 중시되며 공동체적 유대감이 강조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낯선 문명을 목도하며 직면하는 ‘근대’에 대한 체험이다. 가문의식에 근거하여 집안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의식을 강조하는 전통적 사고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것에 속하는 신문명에 대한 감탄이 이어진다. 이 문명체험은 시각적 풍경을 이루는 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체험이다. 이점에서 작품 안에는 동시대에 신, 구 문화가 접변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전통과 근대’의 상이한 질서들이 교직되어 있다.

목적지인 경성에 도착한 후의 유람 여정은 ‘종로와 진고개 거리, 화신 백화점, 경복궁과 창경원, 남산공원, 총독부, 덕수궁, 창덕궁, 월미도’로 나타난다. 경성의 가장 대표적인 풍경인 거리와 백화점을 돌아보면서 지은 이에게 근대 문명은 화려한 외양과 신기한 문물로 다가온다.

습스어이 길을 잡아 종노이 나서분이  
오고가는 촛소리는 정신수심이 아득하고  
치중도 변화하다 진고기 다다른이  
좌우전 전방마다 휘황찰는 잔고괴석 톱시도 기이하다  
화신상점 드러간니 주란화각 즐비한디

12) “슈십여명 친외손이 장너 영화 진진혀여/ 만연니 장구토록 법과 교팅 봉송하고/ 시세 부박 징계히서 만복을 창덕할지어다”

승강기 드러선니 오층덕가 짐시되어  
두루 도라 살펴본니 물화도 쓰여있다

차소리가 요란한 종로 거리는 치장이 변화하다. 진고개의 휘황찬란한 전방들, 화신 상점의 승강기는 이 시기 경성의 신문물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근대는 화려한 물질성의 기표들로 표상된다. 이후 지은이는 창경원의 야경에서 전등, 유성기, 활동사진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이 이득하면서도 장한 신세계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저자에게 낯선 문명을 특징짓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규모’이다. 그것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왕에 사고하고 상상해왔던 경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지시한다. 물품을 산처럼 쌓아놓은 상점들부터 온갖 짐승들을 다 모아놓은 창경원, 수많은 경치와 온갖 볼거리를 펼쳐놓은 인천 월미도를 돌아보며 그 규모에 감탄한다. 방문지에서 대면한 장면들에 대한 형용들은, “물화도 쓰여있다”·“온갖 금조 다 모헛늬”·“만중(萬丈) 갓튼 너른 고덕 철망도 한정(限定) 업다”·“경치도 한정(限定) 업다”·“구경 한정(限定) 업시 어나 스이 일속 구경” 등 주로 시각적 특질을 이루는 규모의 방대함에 대한 경탄이다.

이와 같이 경험 영역을 뛰어넘는 문명의 기표는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기이함과 낯설음으로 다가오며, 그것은 ‘만국(萬國)’·‘외국(外國)’으로도 표현된다. 다음은 창경원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마주한 장면이다.

외국물형 코끼리는 이름만 들엇던니  
오륙척 더난 코가 좌우힘이 코가 더고 먹는 것도 코이로다  
동물원니 되자 한니 허다 짐싱 잡혀왔늬  
말 잘흐난 잉무새는 소진장이 구변인가 형형색색 기절흐다

원숭이 양보라 스람 보고 손 버리니  
그 엽히 수들과 바다소 귀가 크고 굴기 증그럽다

원숭이는 사람을 보고 손을 벌리며, 앵무새는 형형색색이 기절(奇絶)하다. 이중 코끼리 외형의 기이하고 생소함은 기왕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외국물형(外國物形)’이라 표현하고 있다. 외국은 기왕의 경험 영역을 뛰어넘는 범주로서의 기표이다. 또한 이어 덕수궁을 방문하여서는 구경하는 많은 관람객들을 바라보며 “만국(萬國) 인민(人民) 구십단(九十團)의 구경도 위람하다”고 하여 “만국 인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명은 ‘외국’ 또는 ‘만국’의 기표로도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근대는 기왕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는 낯설고 기이한 것이면서도 ‘만국 인민’을 포괄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로 표상된다. 그것은 낯설고 기이하면서도, 방대한 물질적 가치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경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미지의 낯선 것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작품에서는 전통적 친족관계와 윤리의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정서와, 방대하면서도 낯선 물질적 가치에 대한 감탄이 공존하고 있다.<sup>13)</sup> 이점에서 ‘전통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이라는 상이한 질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2) 왕조에 대한 기억과 근대 관광 체험의 공존

이상에서 살펴본 ‘전통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은 작품 안에서 크게 마찰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이질적인 질서들은 때로는 마찰, 길항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당시

13) 이점은 이 시기 다른 규방가사 작품들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60~63쪽.

경성은 근대문명의 활기와 조선 왕조에 대한 잔상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궁궐은 각기 다른 시간상인 과거와 현재에 속한 상이한 가치들이 마찰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장소들은 궁궐이자 공원인 곳들이다. 조선 왕실의 상징적 장소였으며 이제는 근대시설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궁궐’은, 상이한 질서들이 마찰하는 대표적 장소였다.

이 시기 경성은 중세의 위계질서에 맞추어 배치된 공간 구획에서 벗어나 균질적인 공간으로 분할, 재배치되었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상징적 장소였던 궁궐을 해체하여 대중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공원은 여기문화의 공간인 관광지로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근대적 관광시설이다. 공원은 근대를 상징하는 장소로 신분제도로 분절되었던 도시의 공간을 일원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분절되었던 국민들까지도 하나의 공간 속에서 통합시키는 장소였다.<sup>14)</sup> 일제는 창경궁과 종묘, 경복궁, 덕수궁 등 왕조의 권위를 상징했던 궁궐들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탈성화(脫聖化) 시킨다.

그 결과 궁궐은 왕실의 과거가 끼쳐 있는 곳이면서 그것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즉 과거 왕조에 대한 기억들은 집단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문화적 기억<sup>15)</sup>으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기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일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위락시설화한 공간이었다. 이제 제각기 문화적 기억을 온축해온 궁궐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위락적 요소를 갖춘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공동의 기억으로서 역사적 삶의 내력이

14) 우미영, 『동도(東度)의 욕망과 동경(東京)이라는 장소(Topos)-1905~1920년대 초반 동경유학생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통권10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00쪽.

15) 궁궐과 같은 역사고적은 문화적 기억으로 의미를 전승해주는 기억이자 집단정체성을 형성시켜 주는 사회적 기억이다. 김학이,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33집, 한국서양사연구회, 2005, 237~239쪽.

침전된 장소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위락적 이미지들이 중층적으로 입혀졌다.

지은이는 먼저 창경원으로 향한다.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으로서 왕실의 거소이자 종묘사직과 연결된 장소였는데, 이제 위락시설인 동물원으로 조성되어 있다.<sup>16)</sup> 지은이가 바라본 창경원은 온갖 기이하고 현란한 모습들을 사랑하는 동물들과 적적히 잠겨 있는 궁내부의 즐비한 좌우 각사(閣舍)들이 병치되어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동물구경 다흔 후의 궁계부랄 향희선니  
 의의한 연못가의 옥선니 노여잇고  
 층계랄 발바 올라선니 즐비한 좌우궁궐  
 적적히 잠겨신니 처처마다 감회로다

앞서 동물들의 기이한 모습에 경탄을 연발하는 한편으로, 적막 속에 잠겨있는 좌우 궁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고 있어,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온갖 기이하고 괴상한 형상들의 동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야단스러움과 소리들의 떠들썩함에 놀라던 모습은 곧 궁내부의 적적한 장면에서 느끼는 감회로 이어지며 정서적 단층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상이 마찰하며 산란한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것은 고종이 머물렀던 장소인 덕수궁을 방문했을 때이다. 덕수궁은 고종이 10년간 정사를 폈던 곳이자 1907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이후 승하할 때까지 거처한 곳으로 이 시기 최고의 권위와 의미가 부여된 곳이었다. 일제는 그 공간을 세속화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통해 꺾내각

16) 일제는 1907년 창경궁에 식물원, 동물원과 함께 이왕가(李王家)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을 분리하는 도로가 건설되며 종묘 북쪽 일대가 크게 훼손되었다. 김대호, 『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갈등과 공간변형-1920년대 식민 권력과 귀족 세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3, 2011, 1쪽.



사를 비롯하여 궁궐 안의 고적들을 해체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sup>17)</sup>

덕수궁 구경가즈 문전의 들어선니  
정신이 황홀하다  
무수한 돌층계에 층층이 들어갈 적  
습획수명 명함 삭여 열두 디신 비석이요  
석수로 깎은 팔용이야 흡스르게 환영갓고  
상상되 올라선니 우리 주상 좌기처라  
황감하고 새로위라 문뎡이 눈 어둡고  
기력이 감감한니 기류할 길 전혀업다  
휘황찰는 말도 말고 송황용 그려스니  
구비치난 형용이요 좌우 편루 병풍의  
오식실노 수을 노와 물식도 여구한다  
만국민민 구십단의 구경도 위람한다  
문명시되 덕이인가 미안감창 층양업서  
비회병출 그지 업다 또 한편 바라본니  
용을 지이 흐른 물리 으린옥척 썩난고야  
화게마다 만발화초 춘식을 자랑하고  
몇 빅연 수훈 목분 단지 너입 뉘뉘고  
좌우전 궁니부가 즐비하다

17) 당시 한국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던 객사 등을 해체시키면서 왕권을 해체시켜 나갔다. 1933년에는 영복당, 수인당 등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재목은 공개 입찰에 부쳐 방매되었다. (중략) 1932년 4월부터 덕수궁 내 전각의 수리와 해체, 정원의 수축이 진행되었고 일본 동북산 벗나무를 심었다. 돈덕전이 철거된 자리에는 아동운동장을 만들었고 휴게소 2개와 매점 등 기타 시설도 설치했다. (중략) 1933년 10월1일 공원으로 만들어져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석조전은 일본인 미술품의 진열 전시장으로 사용되었다. 한소영·조경진, 『덕수궁(경운궁)의 흔재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대한제국시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집, 2010, 49~51쪽.

곳곳마다 적적한니 분울지심 그지업고

덕수궁에 들어서서 열두 대신의 비석과 고종이 머물던 용상(龍床)을 바라본다. 쌍황용이 구비치는 모습과 오색실로 수놓은 병풍이 있는 형상은 예전 왕실의 위기가 살아있는 듯하다.

이곳은 예전의 물색(物色)이 간직한 ‘과거’의 흔적과 그 흔적을 재현한 ‘현재’라는 이질적 시간상이 동시에 병존하는 장소이다. 무언가 존재하면서 부재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기억과 망각의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는 장소<sup>18)</sup>이다. 이 덕수궁에서 승하한 “주상”(主上)의 부재에 대해 “미안감창(未安感愴)의 충양없음”과 “비회병출(悲懷迸出)”의 죄스러움을 느끼는가 하면, 그 재현된 모습을 수많은 관광객들이 위압하게 구경하는 모습에서는 문명시대의 위력을 실감하며 감탄하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용상과 편루의 흔적 속 주인들은 부재하는데, 그 ‘물색’의 화려한 외양을 그대로 재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는 이질적 시간상과 상이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이질적인 시간상과 ‘부재와 존재, 적적함과 떠들썩함, 분울감과 감탄’의 이질적 가치들이 마찰하며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산란하는 의식 속에서 궁궐 경복궁에서는 ‘기억’보다 ‘망각’이

18) 안 야스만의 용어로는 기념장소이다. 기념장소에서 과거와 현재는 현격한 차이. 즉 그 장소와 관련된 특정한 역사는 계속 전승되지 않고 급격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절된 역사는 폐허나 유물 혹은 흔적의 형태로만 남아있다. 현재에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삶은 그 잔재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그 장소에 남은 물질적 잔재는 새로운 문화적 기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기념장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존하면서 그것이 기억에 의해 재활성화되는 순간 시간의 불연속성을 가리키는 표지가 된다. 그것은 무언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기억과 망각의 이중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윤미애,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17집, 한국카프카학회, 2007, 233~234쪽.

앞서기도 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가장 공식적인 법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가장 크게 변형, 훼손된 대상 중 하나였다.<sup>19)</sup>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청사의 부지로 경복궁을 선택한 것은, 경복궁이 자주권을 상징하는 유물이고 조선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지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0)</sup>

이제 경복궁은 옛 왕조의 궁궐과 경회루, 그리고 일제가 세운 총독부가 병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총독부는 근대식 외양을 갖춘 곳으로 “신도(神刀)로 깎아난가 돌문채도 휘황하다”는 경단을 자아내는 곳이다. 돌문채의 휘황한 시각적 특질이 위압적인 총독부, 그곳에 이어져있는 옛 궁궐 경회루와 궁내부는 역시 ‘백학 오리가 날아들고 절승경계를 이루는 시각적 특질로서의 풍경<sup>21)</sup>으로 감상된다.

그잇튼날 총독부 구경가즈 좋아난 압서우고  
 질야 형오 뒤서우고 조손니 손을 잡고 문전의 들어갈 제  
 문지기 두순수가 경예하고 길을 열어 촛초로 들어간니  
 그박게 스통오달 촛소리는 현기두통 즈연하다  
 어람갓튼 돌층당이 오층당이 불명하나  
 신도로 깎아난가 돌문채도 휘황하다  
 감감글역 이들히라 내려가기 재촉한니

19) 1867년 경복궁 중건으로 정궁으로서 그 위엄을 갖추던 경복궁은 일제 침략 이후 전각들이 경매되고 궁내 속은 경복궁 주변에 근대기반시설과 근대건축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궁궐의 윤곽이 변화되었다. 송인호·김제정·최아신, 『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5, 2014, 112쪽.

20) 송인호·김제정·최아신, 위의 논문, 116쪽.

21) 관광에서 자연은 공간으로 체험되는 대신 풍경으로 감상되며, 인간은 삶을 통해 이해되는 대신 표면적 특질로 구경된다. 권보드래·김진숙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33쪽.

아히들이 좌우로 부익하여 근근이 문을 난이  
 세상천지 반가와라 쏘어던 구경이나  
 즈스 어이 전진하여 경희탈 츠즈가서  
 두루 거러 슬퍼본이 처치마다 용승좌처  
 궁너부며 명승던친 공중누각 그압히  
 연못 물결 술유로 노라잇서 빅학오리 나라들고  
 절승경기 성경일다

이 장면에서는 총독부의 근대적 풍경이 지은이의 의식을 압도하고 있다. 총독부의 외관뿐 아니라 경례하는 문지기 순사의 존재와 사통오달(四通五達) 길거리의 차소리라는 낮선 풍경이 압도하면서, 경복궁에 자리한 ‘용상좌처’나 ‘궁내부’가 지닌 상징적 아우라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경복궁이 보여주는 공중누각과 연못 물결의 경치라는 시각적 특질은 오히려 익숙한 풍경으로, 총독부의 근대적 외양과 병치됨으로써 낮선 풍경에 압도되어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이렇게 경복궁은 근대식 외형의 총독부와 병치되면서 상징적 의미가 퇴색하여 탈성화(脫聖化)한다.

마찬가지로 창경궁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없앤 후에 그곳에 들어선 창경원의 위용은 신문물을 체감하는 장소이다. 다음 창경원의 야경을 묘사한 장면은 작품 속에서 근대문물들이 조합되어 가장 화려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이다.

흥기원너 제희되어 석식을 재촉하여  
 야시 구경 더욱 장타  
 통닉길 쏘싸이가 눈도 갖고 쏘도 갖다  
 오색이 빗난 광채 쏘가지의 가지가지

전등 달고 신과 놀고 연극 놀아 활동사진  
 유성기 오음육율 풍악소리 정신니 아득한디  
 못 가운데 전기보난 요술인가  
 오식 영롱 달도 갖고 별도 갖히 정신을 히롱흔다  
 이러타시 조흔 경치 세화세풍 세로워라  
 허다 구경 볼스록 감히로다

‘전등’, ‘신파극’, ‘유성기’, ‘활동사진’, ‘전기보’ 등은 근대를 감각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이 시기 일제는 봄이 되면 창경원을 야간에 개방하여 야시(夜市)를 열고, 연극 공연과 영화 상영을 하고 있었다.<sup>22)</sup> 마침 저녁 무렵에 창경원을 방문한 지은이는 신파극과 활동사진이 공연되는가 하면, 유성기에서 ‘오음육율(五音六律) 풍악소리’는 쏟아지고 현란한 조명등이 전기보(電氣裸)처럼 춘당지(春塘池)를 반짝이고 있는 모습에 감탄한다. 못 가운데 전기 보자기를 썩은 듯, 요술인 듯 ‘정신이 아득’하다. 이제 ‘전기보자기를 깔아놓은 못’만 놓여 있고 공동의 문화적 기억을 담지한 ‘춘당지’의 아우라는 퇴색된다.

나아가 봄날에 마주한 신문물의 화려한 광경을 통해 “이러타시 조흔 경치 세화세풍(歲華歲豐) 세로워라”고 하여 생동하는 번영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전등의 화려한 조명과 유성기, 활동사진이 조성하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풍경은, 태평성대의 풍요로운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문명시대를 바라보는 지은이의 시선은 일방적인 찬탄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산뜻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는 덕수궁에

22) 『동아일보』1935년 4월 9일자에는 “十一日부터 開苑될 夜櫻의 昌慶苑 春塘池에 五色玲瓏한 레온탑 銀燈 演舞場도 完備 밤 入苑料는 廿錢으로 올려”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서 미주한 정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왕조의 부재를 실감하는 궁궐에서 ‘세화세풍’의 기운을 느끼는 혼란스러움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은이의 산란하는 감정과 의식은, 월미도를 마지막으로 이번 유람 여정을 마치고 난 후의 총평에서 확인된다.

구경 한정 업시 어나 스이 일속구경  
 정신니 정신니 혼미하다  
 칠십 평생 못 본 구경 이이저난 유감업다  
 문명시덕 발달도 괴승하다

칠십 평생 동안 못해 본 구경을 유감없이 한 후 느낀 점은 ‘정신니 정신니 혼미하다’는 것과 ‘문명시덕 발달도 괴승하다’는 것이다. ‘정신니 정신니 혼미하다’는 토로에서 보듯이 혼란스러우며, ‘괴승’하여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 의식의 ‘혼미함’과 ‘괴승함’의 감정은 근대에 대한 경험이 감탄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궁궐이나 유람지 곳곳에서 목도한 신문물의 광채는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이질적인 질서들이 착종되어 있어 복잡한 심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 복잡한 심회는 여전히 전통적 정서에 익숙한 저자가 왕조라는 정신적 구심점의 부재를 실감하면서도 동시에 물질적 번영을 목도하는 데에서 온다. 곧 왕조의 부재, 나아가 국망(國亡)의 현실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질서들이 충돌하는 데에서 오는 양가적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4.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 산수 유람 전통과 근대 관광의 교차

그동안 여성 기행가사는 화전가와 유사한 놀이적 성격을 지니는 한편으로, 사대부 산수유람 문화의 자장 안에 놓여 있었다. 19세기 은진 송씨의 작품 <금행일기>에서 작가는 정서적 해방감을 구가하는 한편으로, 산수를 운치 있게 완상하고 경치를 표현해 내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토로하고 있다.<sup>23)</sup> 또한 20세기 초 작품들인 <금오산채미정유람가>(1925년), <해인사유람가>(1930년), 조애영의 <금강산기행가>(1930년) 등 창작 시기가 확인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외 작자 및 창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여성 기행가사 작품들이 승지의 산과 강을 유람하면서 산수를 완상하는 내용이다.<sup>24)</sup>

이 산수유람 문화는 유교지식인인 사대부의 정신사적 흐름과 결합되어 전개되어 온 것이다. 산수유람 문화는 승지의 산수를 완상하며 역사고적을 돌아보는 것으로, 한 장소에 부속된 고적과 시문의 제영(題詠)이 장소감을 형성하는 인문지리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역사고적에 대한 충실한 열거와 묘사는, 한 장소에 침전된 정신적 가치, 역사적 전통이 특정 장소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인문지리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sup>25)</sup> 이는 조선시대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체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통치를 목적으로 편찬된 읍지(邑誌)에 그 고을의 명승지, 누정뿐 아니라 제영의 항목이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맥락<sup>26)</sup>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사상·태

23) 유정선(2002), 앞의 책, 206~207쪽.

24) 이들 기행가사의 배경이 되는 여행지를 살펴보면, 청량산·가야산·주왕산 등의 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과 영남 지역 주요 도시와 누정이다. 최은숙,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 『어문학』122집, 507~508쪽.

25) 유정선(2013), 앞의 책, 137쪽.

도·미학적 정서를 뜻하는 인문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27)</sup>

또한 산수유람 문화는 글쓰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문장력이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상황과 산수 유람이 문장력에 기여한다고 본 유가적 인식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에 여성들도 인문지리의 전통과 산수유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유람을 문화적 교양행위로 승격시키고자 하였다. 자신들의 놀음을 선인의 풍류와 동일시하는가 하면 고적에 얽힌 정신적 내력을 중시하며, 산수의 정취와 유람의 흥취를 표현하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대부의 문화적 교양을 대등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이 투영된다. 여성 기행가사에는 이로 인한 자의식과 심리적 갈등의 부면이 때때로 강렬하게 부각되고 있다.<sup>28)</sup> 여성 기행가사에서 산수를 유람하면서 글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표현의 욕구를 넘어서서 지적 욕망까지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 기행가사에서는 경성 구경으로 대

26)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33~40쪽.

27) 경관이란 눈을 통해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풍경(view)이나 경치(scene)와 다른 의미의 용어로 쓰이는 개념이다. 역사지리학자 다비는 경관에 대해 정의하기를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조화와 통합”, “자연과 인문(인간의 사상, 태도, 미학적 정서를 말함)이 결합한 결과, 다양한 힘들의 순간적인 균형이자 평형상태라 하였다. 진중환·서민철·장의선·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10, 283쪽.

28) 여성이 지은 기행가사 작품들을 보면, 산수 유람을 한 후 글귀를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근대에 지어진 작품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창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그러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비록 여자들스 글귀 한 칸 업단말가”(〈금광유람가〉)·“이처럼 좋은 풍중 표현 못할 이네 심정 글 한귀를 못 올프니”(〈청양산수가〉)·“무안코도 참피하다 명순승디 차자왔서 글 한귀 업스신니 포적이 무엇신고”(〈슈곡가라〉)·“유곡을 읊허니야 칩필도 그리고져 너즈의 분외시라 설은 모습 썩이로다”(〈녀즈탄〉) 등 글에 대한 욕망은 기행가사에서 강렬하게 표현된다. 유정선(2013), 앞의 책, 298~300쪽.



표되는 도시의 문명체험이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근대관광이 자리하기 시작한다. 관광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19세기 전반 서구의 교통기술의 쇄신과 사회변화, 그중에서도 철도교통의 발달과 함께 탄생, 전개되었다. 중세의 여행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에 이르러 대중적으로 조직화·상업화 되었으며, 서구사회가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sup>29)</sup>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관광은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sup>30)</sup>,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욕망에 닿아있었다. 국민의 관심을 사회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자 의도했던 일제는 언론을 통해 취미와 쾌락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권장하며 여가의 담론을 조직하였다.<sup>31)</sup> 이에 따라 이 시기 근대관광은 근대적 교통체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여가문화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여성기행가사도 1920년대부터 이러한 근대관광의 체험을 다루기 시작한다. 1920년대 최송설당의 기행가사 <한양성중>(1923)에서 경성은 여전히 한양으로 호명된다. 작품 속 한양은 왕조의 조종(祖宗)을 대표하며, 왕조 창성지로서의 위의를 간직한 장소이다. 최송설당은 백악산과 한강수

29) 이는 곧 관광이 중세까지의 순례와 직인과 성직자의 편력, 17~18세기 귀족과 상류계급의 자제들이 교양을 위해 각지를 여행한 그랜드 투어를 한편으로 계승하면서도 이러한 것과는 다른 근대적 현상으로서 대중화하고 산업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집, 2010, 371쪽.

30) 근대관광의 조건인 교통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조선 내 근대관광은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조성운, 위의 논문, 371쪽.

31) 매일신보는 지면을 통해 승경지를 소개하고 여가의 담론을 조직, 쾌락의 필요를 제창하였으며, 굵직한 문화행사들을 주관하였다. 권보드레, 『1910년대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36집, 2008, 158~160쪽. 또한 여행이나 탐험에의 열망은 당시 조선의 정치경제 등 물질 토대의 발전과는 전혀 조응하지 않는 돌출적 국면이었다. 김현주, 『한국 근대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130쪽.

의 정기에 둘러싸여 있고 새로 지은 가옥들이 즐비한 모습 속에서 다시 희망의 기운을 느낀다. 여기서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간략히 언급될 뿐 관광체험의 내용은 미미하다.

반면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금강유람가>(1923년 경)는 금강산과 경성을 유람한 내용<sup>32)</sup>으로, 경성에서 도시의 위락시설을 방문하고 도시의 유흥을 즐긴다. 이러한 면모는 향촌의 여성에게 경성을 구경하면서 신문물을 체험하는 것이 관심사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sup>33)</sup> 즉 전통적으로 산수 유람지로 각광받았던 금강산 유람 내용이 축소되면서 근대적 관광체험이 투입하기 시작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어지는 1930년대에는 여전히 산수 유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들이 창작<sup>34)</sup>되는 한편으로, 경성이 여행의 목적지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인 근대관광 체험을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sup>35)</sup> <경성노정기인력거>와 함께 역시 구여성이 1935년에 지은 <중반송별><sup>36)</sup> 또한 경성 유람가 사로서, 이 시기 경성유람이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작품에서 여정 속 주요방문지는 ‘궁궐’이자 ‘공원’인 곳들이다.

32) 이 작품은 지은이를 포함한 부산에 사는 부녀자 44명이 단체로 금강산과 경성을 구경한 작품이다. 장정수(2003), 앞의 논문, 431쪽.

33) 장정수(2003), 앞의 논문, 423~424쪽 참조.

34) 1930년대 산수유람을 읊은 작품들은 정효리 <해인사유람가>, 조애영 <금강산기행가> 등이 있다.

35) 1915년에 지어진 <방남회노정기>가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정작 경성 도착 후의 경성 유람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장정수, 앞의 논문, 2003, 417쪽. 이후 1925년 경 <금강유람가>는 금강산 유람이 여행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성은 경유지로 나타난다. 1930년대에 지어진 <중반송별>(1935)·<경성노정기인력거>(1936)에 이르러 경성의 도시유람이 여행의 목적으로 부상하며, 이곳에서의 본격적인 신문물 체험이 다루어진다.

36)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15집(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에 소개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궁궐은 공원으로 바뀌면서 역사적 장소로서의 성격과 위락시설로서의 특징이 교차한다. 역사고적의 내력을 되새기는 문화적 기억의 장소이면서 시각적 특질로 감상되는 위락적 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산수의 심미적 정취를 완상하며 역사고적의 정신적 내력을 되새기는 문화적 교양행위였던 산수유람 문화가 시각적 풍경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관광체험과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은 고적인 궁궐뿐 아니라 정신적 의미를 지닌 ‘산수’가 위락지인 ‘공원’으로 교차하는 장면이다. <경성노정기 인력거>에서 마지막 방문지인 인천 월미도로 향하는 장면에는 산수 유람의 문화체험과 관광체험이 중첩되어 있다.

인천바다 흐츄흐뵤 내려서서 바다을 바리본이  
 땅땅뵤히 너른 물의 화륜선과 어선들이  
 만흥도 만흥시키고 봉봉선 오는 양이 비조갓치 내려온다  
 비안의 풍유깃들 몽기몽기 호걸일너  
 우리도 선유흐자 봉봉선 올라안즈  
 여중호걸 우리등이 십금의 양성흐야  
 이른 노름 처음이라 천송요뵤 선여되여  
 반도깃성 흐여볼가 용국의 칩경인가  
 소자침의 썬을 써서 적벽노름 방불흐다  
 묘츄히지일속이라  
 월미도랄 도라든이 다리도 꿩중흐고 웅중흐다  
 각색 물품 쓰헛난뵤 기럼으로 스서 들고  
 만국공원 올라간니 바다이 눈알리요  
 경지도 한정업다 무릉도원 안니온가  
 온갓 핫초 만발흐고 철망 안의 온갓 짐싱 우지진다

월미도로 향하는 바다에서 선유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소자침(蘇子瞻)의 쏬을 받아 적벽(赤壁) 노름 방불하다”고 하여 소식(蘇軾)의 적벽유(赤壁遊)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이 때 느끼는 기분을 역시 소식의 글귀를 인용하여 세속의 모든 티끌을 씻어내는 “묘충히지일숙(渺滄海之一粟)”의 정신적 지취(志趣)로 형용한다. 이로 인해 ‘심금(心琴)을 양성하노라’고 하여 산수 속 심미적 체험을 통해 정신을 고양시켰노라고 한다.

그런데 선유를 즐기며 도착한 월미도는 산수를 완상하는 곳이 아니라 굉장한 다리와 같은 인공시설이 버티고 있고 각색물품이 쌓여 있는 ‘만국(萬國) 공원’이다. 이곳은 기념품을 구매하는 곳이며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철망 안의 온갖 짐승이 우짖는’ 공원이다.

이렇게 산수 유람과 근대관광체험이 공존, 또는 교차하는 양상은 동시대의 경성유람 가사인 <중반송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지은이는 자신의 여행을 여전히 문화적 교양행위로 이해하고 있어 산수유람의 전통이 근대관광의 체험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지은이는 경성의 거리를 구경하며 물화가 산처럼 쌓여 있는 모습에 놀라워하는 등 근대 문물에 대해 경탄한다.<sup>37)</sup>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근대문물 체험은 거리를 구성하는 시각적 풍경의 한 컷으로 끝난다.

작품 <중반송별>에서 지은이는 경성을 돌아보며 신문물체험보다는 역사고적을 돌아보고 산수를 유람하는 정신적인 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작품 역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장소는 덕수궁이어서, 이 당시에 덕수궁은 과거의 흔적을 생생히 내함하여 사회적 긴장성을 내장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우라를 세밀하게 복원함으로써 당시 덕

37) “장안도로 너른 골목 전후좌우 완상하니 시가의 변화문식 이목의 현황하고”·“삼층사층 벽돌집의 오식병화 그림이오 오복덤 덩썩옥은 물화도 씌일시고”,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수궁에 각인된 공동의 문화적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 곳은 지은이의 회상 안에서 왕대비 가례의 장엄하고 화려한 기억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한 왕조의 현존을 증거하던 한 장면으로 생생하게 빛나고 있다.<sup>38)</sup>

하지만 이러한 기억 속 장소인, ‘만조백관(滿朝百官)이 시립(侍立)하고 있었던 터가 이제는 금수(禽獸)들이 뛰어다니는 곳으로 바뀌어 있’<sup>39)</sup>는 것을 목도하면서 왕조의 부재를 실감하며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이 덕수궁은 집단적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문화적 기억의 장소이며, 그렇기에 국망의 현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곳이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 지은이는 “세강국말(勢強國末)”의 현실 속에서 공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되비춰보며 ‘무용(無用)한 여즈(女子)’임을 자탄한다. “솔토지인(率土之人) 왕신(王臣)”으로 “보답천은(報答天恩) 언제 하리”·“헛부고 송황하다”하여 충(忠)의 이념을 확인하며 쓸쓸하게 무력감과 죄의식을 토로한다.<sup>40)</sup>

이러한 궁궐에서의 감회는 이어 임진강 산수 유람으로 이어지며, 경성 주변의 임진강 선유 장면이 두드러지게 확장되어 있다. 이 선유 장면에서는 경치의 묘사와 흥취의 표출에 몰두한다. 강물의 빛을 바라보며 “애애 화기(靄靄和氣)”에 즐거워하며, “인간의 허다 고평(苦匏)”가 “강수(江

38) “왕대비 가례시의 금관조복 회황하며 / 털사모 오직원삼 용봉니 현요하고 / 수복다담 사젓구나 지상을 뵈옵는듯 경희를 듯잡는 듯 / 건안칠년은 당시의 뵈옵는듯 / 문무빅관은 좌우의 피섯난듯 / 안회춘담 드린 곳의 중전마마 지적인듯 / 일월병용 상우의 상감님이 좌거하듯 / 심신니 우울하고 만념니 사라진다 / 선조진조 입신양명 좌와거쳐 완전하고 / 국호는 변하여도 고적은 의의하고”

39) “만조빅관 시립 터가 비금주수 덕신인가 흥진비리 감회로다”

40) “헛부다 우리 인칭 무용한 녀즈로셔 / 솔토지인 왕신으로 보답천은 언데하리 / 민충등의 열흔이리 세강국말 었지하리 / 우울창창 수목 사의 광활흔 대궐 뒤의 / 초록 당막 잔디우의 시톱 업시 안즈시니 / 헛부고 송황하다”

水)의 소멸”하는 지취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산수가 주는 정취는 ‘고촌(孤村)에서 성장한 몸이 온갖 호강에 일신(一身)이 송구함을 느낄 정도로 감격스러운 것이다.<sup>41)</sup>

나아가 그러한 자신들의 놀음을 소식과 두보의 풍류에 비기면서 ‘진솔 풍류(眞率風流)’라 표현하며, 글체를 내어 시를 짓고 술을 음미하고 있다.<sup>42)</sup> 자신들을 ‘치마 두른 사군자(士君子)’라 하여 자족하는 모습에서는 문화적 교양을 대등하게 누리는 것에 자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43)</sup>

이렇게 작품 <중반송별>에서는 덕수궁에서 문화적 기억을 떠올리고 공적 자아로서의 무력감을 토로하는가 하면, 임진강 주변의 산수를 완상하며 진솔한 풍류를 즐긴다는 자부심 속에 기뻐한다. 그리하여 그가 이해하는 유람은 여전히 산수유람의 문화적 교양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여성 기행가사에서 역사고적을 바라보며 문화적 기억을 읽어내고, 사회현실로 향한 시선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의 자장 안에 있었던 산수유람 문화와 인문지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지리의 전통 속에서 단순히 자연은 시각적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고적과 산수는 한 고장의 정기(精氣)와 역사를 온축하고 있어 현재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고적의 내력을 이해하고 산수의 정기를 느끼고자 했던 정신적 의미로서의 유람은 여성들에게 문화적 교양을 향유하고자 하는 지적 욕망과 공적 자아로서의 자의식까지 길어낸다.

이로써 보면 1930년대 구여성들의 기행가사는 도시적 감성에 근거한

41) “무무고촌 칭당”한 몸이 이러한 명승지에서 가진 호강을 하고 “무진 경치에 이몸이 형황”하고 “일신니 송구”한 심정을 토로한다.

42) “현조뜨라 글데넬 제/ 일빅 일빅 부일비라 시우니 일천수라/ 시경의 읍귀산니오 필람의 경풍위라/ 음풍농월이 진일하니”

43) 이러한 과정에서 친지 중에서는 “이몸니 여즈 되여 치마 두른 사군지라”라 하여 스스로 글을 잘 짓는 사군자라 칭하는 발성이 뒤따른다.

안락하고 오락적인 관광체험에 함몰되지 않고 국망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고적이 환기하는 문화적 기억을 통해 나라의 상실을 실감하며 무력감을 토로한다. 경성 시가지의 풍경은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물질적 가치를 뜻하며, 문명으로서 특별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 속 구여성은 유교를 내면화하고 있어 전통적인 친족관계와 가문과 같은 집단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한다. 이러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역사’와 ‘전통’을 포함한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 속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는 유교의 정신적 자장 안에 놓인 산수문화 체험과 관광체험이 접변하고 마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구여성들이 경성을 유람하며 느낀 점은 문명의 발달을 표상하는 신문물의 화려함과 정신적 구심점의 부재가 공존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또는 물질문명에 대한 찬탄에 앞서는 국망 현실의 안타까움이었다.

## 5. 결론

1930년대 경성 유람 가사들은 구여성이 ‘근대’를 체험하고 느낀 점을 다루었다. 1936년 안동에 사는 여성이 지은 <경성노정기인력겨>을 비롯하여 이 시기 경성 유람가사는 구여성이 문명을 체험하고 느낀 체험을 읊고 있다. 작품에서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체험을 중시하는 놀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럿이서 하는 여행으로서 공동체적 유대의식을 중시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물질성으로 대표되는 근대를 체험하고 있다.

작품 속 경성은 왕조에 대한 문화적 기억의 장소이면서 신문물을 체험하는 근대적 관광의 장소였다. 특히 당시의 ‘궁궐’은 ‘과거’의 잔상과 ‘현재’의 활기가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구여성들은 신문물의 화려한 물질적 외양과 왕조 쇠퇴의 현실이 공존하는 것을 목도하며 양가적 감정을 가졌다.

여성 기행가사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산수유람 문화의 전통 속에서 역사고적은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 존재하며, 이는 왕조의 쇠퇴와 국망의 현실을 환기하는 기억이다. 또한 산수 유람의 전통 속에서 유람은 문화적 교양행위로 이해되며, 이는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 나아가 지적 욕망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여성 기행가사에는 이러한 문화적 교양의 의미를 지녔던 산수유람 문화의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새롭게 오락적이고 유희적인 근대적 관광체험이 틈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내면화 속에서 유희적인 관광체험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현실에 대한 시각을 견지한다. 그리하여 왕조의 부재, 나아가 국망(國亡)의 현실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질서들이 충돌하는 데에서 오는 양가적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여성기행가사는 최근세까지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관광 체험이 압도하면서 정서적 해방감을 구가하는 놀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국사편찬위원회 DB.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4, 국학자료원, 2003.

권정은, 「여성기행가사의 관유체험」,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김병국 외, 월인, 2005, 299~323쪽.

권보드래, 「1910년대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36집, 2008, 147~169쪽.

권보드래·길진숙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1~186쪽.

김대호, 「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갈등과 공간변형-1920년대 식민 권력과 귀족 세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11, 1~54쪽.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고전여성문학연구』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47~87쪽.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139~184쪽.

김현주, 『한국 근대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1~296쪽.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9~68쪽.

\_\_\_\_\_,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고시가연구』15집, 고시가학회, 2005, 195~224쪽.

\_\_\_\_\_, 「금행일기와 여성의 여행체험」, 『한성어문학』22집, 한성어문학회, 2003, 59~79쪽.

\_\_\_\_\_, 「조선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여행형태와 현실인식」, 『고전과 해석』5집, 고전문학연구학회, 2008, 101~127쪽.

\_\_\_\_\_,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70~85쪽.

송인호·김제정·최아신, 「일제강점기 박람회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55,

2014, 111~138쪽.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1~174쪽.
- 우미영,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장소:1920~1938년의 경주」,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475~504쪽.
- 유정선, 「<금행일기>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206~214쪽.
- \_\_\_\_\_, 『근대기행가사연구』, 보고서, 2013, 1~378쪽.
- 윤미애,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17집, 한국카프카학회, 2007, 229~251쪽.
-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배경과 작품세계」, 『어문논집』 47, 민족어문학회, 2003, 415~447쪽.
- \_\_\_\_\_, 「1960~70년대 기행규방가사에 나타난 여행문화와 작품세계- 유흥적 성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0권, 민족어문학회, 2014, 5~32쪽.
- 전종한 · 서민철 · 장의선 · 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10, 1~508쪽.
-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369~405쪽.
- 최은숙,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 『어문학』 122집, 499~526쪽.
- 한소영 · 조경진, 「덕수궁(경운궁)의 혼재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대한제국시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집, 2010, 45~56쪽.

## ABSTRACT

Female travel gasa of 1930s and travel experience of Old women  
 —focused on <*Gyeonseong Itinerary Rickshaw*>

Yu, Jeong-sun

This study analyzes world of female travel gasa in 1930s by focusing on <*Gyeonseong Itinerary Rickshaw*>, a work by woman of old time. In the work, different factors such as traditional emotion and experience of unfamiliar civilization coexist. While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family members based on traditional relatives is emphasized, unfamiliar civilization experience characterized by scale can be found. As a result, traditional emotion in which traditional relatives and group consciousness are important coexists with admiration towards material value of unfamiliar and vast civilization.

Palace represented the place where these different orders collided. While visiting the palace and witnessing the absence of the dynasty, a center of spirit, and material prosperity at the same time, writer feels ambivalent feeling.

In female travel gasa of 1930s, experience of sensual and entertainment-focused modern tour and sightseeing tradition intersect. Sightseeing culture, in which historical sites were emphasized and eagerness to write was boosted based on Confucianism, starts to change into travel experience where entertaining and visual images are spent.

Old Women show their viewpoint of social reality in travel gasa by emphasizing collective value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ideas. Consequently they feel confusion over coexistence of different factors such as reality of the nation's fall and cultural prosperity.

**Key Words** travel gasa, 1930s, Old women, *GyeonseongItineraryRickshaw*, modern

tour, sightseeing culture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